

## 글쓰기 교실 (1·2)

최중순 지음/김동규 그림  
학민사/B5/128면/4000원

국민학교 1·2학년에게 글쓰기 기초단계를 지루하지 않게 설명한 지침서.

제1권 '날말찾기놀이'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을 어린이 스스로 찾아보고 그것을 쓰게 한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의 이름을 쓴다거나 시장에서 본 여러가지 사물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 이밖에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을 표현하는 낱말을 배울 수 있다.

제2권은 1권에서 배운 낱말들을 가지고 매끈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자기를 소개하는 글, 편지, 기행문, 견학기록문, 생활문 등 다양한 글쓰기를 배운다. 어린이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글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저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국민학생이 직접 그린 삽화를 수록해 어린이들이 글쓰기 못지않게 그림 실력도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자꾸자꾸 물음표

김창훈·김자경 지음  
국민서관/A5신/252면/7000원

장차 과학자나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창훈(부안국교 4년)과 법관을 꿈꾸는 자경(봉의여중 3년) 남매가 쓴 일기를 함께 엮었다.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병을 얻게 돼 가족 모두 춘천으로 이사한 이야기와 더불어 창훈·자경 남매의 새로운 학교생활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다. 창훈이는 만들기를 좋아하고 호기심 많으며 자경은 피아노를 잘 치고 장래 꿈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들의 일기 속에는 어른들의 세계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편 지은이들은 책을 많이 읽고 그만큼 생각도 어른스럽게 해 부모님의 시름을 덜어주기도 한다.

일기마다 어지간한 낱말은 모두 한자로 표기한 점도 특이하다.

## 멋진 세상, 아름다운 어린이

노석기 지음/황명희 그림  
웅진출판/A5신/118면/3000원

국민학교 1~3학년에게 바른 생활습관을 이야기로 풀어서 재미있게 들려준 후 '잠깐! 생각해보아요' 코너를 마련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

공중도덕, 우애, 정직, 바른생활습관, 환경보호, 예의 등이 그 주제이며 각 주제별로 4~5편의 이야기를 실었다. 예를 들면 공중도덕 편은 목욕탕에서 혼자만 뜨거운 물을 쓰는 사람, 버스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사람, 극장 의자에 껌을 붙여 놓는 사람 등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일러주고자 한다.

어린이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마음자세를 강조하는 책이다.

## 동화로 엮은 천로역정

한상남 엮음  
예찬사/A5신/178면/3500원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 쉽게 풀어 쓴 책.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한지를 성경에 근거하여 알려주고 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각자 살아온 삶의 무게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주인공은 수많은 시련과 좌절, 유혹과 의심을 떨쳐버린 후에야 천국으로 들어선다. 악마의 왕 '아블리온'과 싸워 상처를 입는가 하면 연기와 불길에 치솟는 죽음의 계곡에서 한동안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시험이 닦칠 때마다 주인공은 믿음과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낸다.

저자 또한 「천로역정」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 세사람이 타는 우주선

슬로보드킨 지음/구자운 옮김  
중앙미디어/A4신/196면/4000원

화가·조각가로도 널리 알려진 작가가 특유의 따뜻한 인간미와 상상력을 잘 드러낸 두편의 동화.

표제작은 별나라에서 지구를 찾아온 소년 마티가 별이는 소동을 그렸다. 마테니아 별에서 온 마티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나타난다. 그는 미국 소년 에디와 그의 할머니를 만나고 이들을 우주선에 태워 나홀 만에 미국 전역을 돌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마티는 지상 6미터 이상을 점프하고, 하늘을 날고,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등 에디를 곤혹스럽게 한다.

또다른 작품 '홀쭉이 밀리와 똥똥이 털리'는 제목 그대로 밀리와 털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서로 집을 바꾸어 살면서 별이는 이야기. 열살짜리 어린이들의 우정을 느낄 수 있다.

## 엄마는 나를 보고 도도새래요

권은 지음  
민/A5신/248면/4500원

이미 두권의 일기책, 「엄마! 나 오늘 사랑할 게 있어요」와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를 펴낸 지은이(성사국교 5년)가 그후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쓴 일기를 엮은 책.

이 일기에 나타난 어린이의 독서량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3학년 때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몽테크리스토 백작」 등을 읽고, 4학년 때는 「7막7장」을 읽는다.

지은이의 별명은 '도도새'와 '쥐싸리'. 아침이 되면 어젯일은 까망게 잊어먹는 도도새처럼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하면 잊어먹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렸다가 다른 물건을 사 가 혼나기도 했다. 또 아빠가 가끔 "쥐싸리(조그맣다는 뜻)만한 것이 까분다"는 말을 자주하는 데서 또하나의 별명을 얻었다.

## 소설 포청천 (전5권)

석오곤 지음/김준범 옮김  
산호/A5신/각 208면/각 4000원

청렴결백한 성품과 공명정대한 판결로써 온 백성의 우상이 된 포청천의 활약을 그린 소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백을 달래고 권세를 떨치던 왕족까지도 정의 앞에 무릎꿇게 만드는 포청천의 지혜와 무용담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포청천은 제갈공명을 능가한다는 책략가 공손과 뛰어난 무예를 자랑하는 4명의 호걸들, 왕조, 마한, 장용, 조호를 거느리고 범죄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 가끔은 그를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사람이 보낸 자객을 만나기도 하는데... 온갖 계략과 음모에도 굴하지 않는 포청천의 예리한 추리력과 강직한 성품이 빛을 발한다.

당시 중국의 시대상황과 공직자들의 울곧은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아인슈타인과 떠나는 시간과 공간여행

러셀 스탠드 지음/장명환 옮김  
지경사/A5신/188면/3500원

주인공 '게당켄'이 과학수제에 대한 고민을 삼촌에게 털어놓는 것으로 시작되는 과학소설.

삼촌과 함께 빛을 연구하던 게당켄은 앨버트 삼촌이 고안해낸 '생각-거품' 속에 들어가 우주선을 타고 신비한 우주를 구경하기도 하고 마음껏 시간과 공간을 여행한다. 이 '생각-거품'은 들여다 보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뭔가를 그리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신기한 기구다. 게당켄은 여행이 끝날 즈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무척 흥미진진한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당켄의 우주여행을 통해 앨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의 연구 성과와 그의 생애를 치밀하게 그린 소설이다.